

경남, 18개 시군 목표달성도 93.8%... 1위 '통영시·남해군'

주요업무 118개 정량지표 평가
전년보다 2%p ↑, 12개 시·군 개선
통영시 95.9%, 시부 1위·최대 상승
남해군 100.3%, 군부 선두 기록
우수사례 정성 78건·도민평가 12건
특조금 20억 차등지원, 성과 확산



경남도청 본관 전경.

경남도가 지난 15일 발표한 '2026년(2025년 실적) 18개 시·군 주요업무 합동평가' 결과 중 정량지표인 목표달성도 평가에서 시부는 통영시(95.9%), 군부는 남해군(100.3%)이 1위를 차지했다.

시군 주요업무 합동평가는 국정 연계 정책과 도정 주요 시책의 추진 성과를 점검하는 종합평가다. 경남도는 시군 행정 역량 강화와 도민 체감 성과 창출을 위해 2011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이번 평가는 국정 연계 지표 91개, 도역점과제 27개 등 총 118개 지표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정량지표(목표달성도, 99개 지표), 정성지표(우수사례, 19개 지표), 도민평가(우수사례) 부문으로 나눠 진행됐다.

정량지표 평가에서 18개 시·군 평균 목표달성도는 93.8%로 전년도 91.8%보다 2%포인트(p) 상승했다. 12개 시·군의 목표달성도가 전년 대비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시부에서는 통영 95.9%, 밀양 95.4%, 김해 92.8% 순이었다. 군부는 남해 100.3%, 거창 100%, 함안 99.2% 순으로 높은 성과를 거뒀다.

특히 통영시는 전년 대비 11.1%p나 상승해 도내 최대 향상 폭을 기록했다.

정성평가에서는 총 78건의 우수사례가 선정됐다. 시부는 김해 12건, 거제 9건, 진주 6건 순이었고 군부는 창녕 10건, 거창 8건, 하동 5건 순으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대표 우수사례에는 김해시 제13차 관광진흥기구(TPO) 총회 유치와 거창군 '대한민국 최초 청년친화도시 지정(국무조정실)'이 포함됐다.

도민평가 부문에서는 18개 시·군이 2천씩 추천한 36건 중 12건이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시부에서는 진주 2건, 김해·밀양·거제 각 1건, 군부에서는 산청 2건, 의령·고성·남해·함양·거창 각 1건이 선정됐다.

특히 진주시 '월아산 숲속의 진주'와 산청군 '지리산미개방구간(장당계곡) 탐방행사'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도는 이번 평가 결과에 따라 특별조정교부금 20억원을 18개 시·군에 차등 배분하고 우수 시·군과 유공 공무원에게 도지사 표창을 수여할 예정이다.

우수사례는 경남도 누리집에 공개해 시·군 간 정책 확산과 행정 역량 강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경남도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평가는 국가 정책과 도정 주요 시책의 추진 성과를 점검하고 우수사례를 확산하기 위한 것"이라며 "도와 시·군이 원팀(One-Team)으로 협력해 도민이 삶의 현장에서 행정서비스 향상을 체감할 수 있도록 도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창원(경남)=이도식 기자

metrobusan@metroseoul.co.kr



지역 이모저모

경북교육청

STEAM+ 클럽 160개로 운영

경북교육청은 학생들의 융합적 사고력과 문제해결 능력 향상을 위해 올해 'STEAM+ 클럽'을 160개 동아리 규모로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STEAM+ 클럽은 학생들이 스스로 질문을 만들고 과학, 기술, 공학, 예술, 수학을 연계해 해답을 찾는 학생 주도형 탐구 프로그램이다. 동아리는 교사 1명과 학생 10명 안팎으로 구성되며 프로젝트 중심 활동으로 운영된다. 경북교육청은 총 4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초등학교 23곳, 중학교 16곳, 고등학교 46곳 등 85개교에서 160개 클럽을 운영할 계획이다. /경북=김준한 기자

창원시

불락 어린고기 51.7만 마리 방류

창원시가 연안 수산자원 회복을 위해 불락 어린고기 약 51만 7000마리를 해상 방류했다고 밝혔다. 방류 해역은 마산합포구 구산면 원전·육계, 진동면 주도·덕동, 진해구 잠도 일대다. 기후 변화와 연안 환경 변화로 줄어드는 어업자원을 보충하고 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시는 앞으로 문치가자미 어린고기 약 20만 2000마리도 마산합포구 육계 등 4개 해역에 추가 방류할 계획이다. 창원시는 매년 불락 치어 방류 사업을 이어오고 있다. /창원(경남)=손병호 기자 metrobusan5@

구미, 경북도민체전 종합우승 해단식

8년 만 원정 정상, 2년 만 왕좌 복귀
30개 종목 944명 출전, 256.5점 획득
15개 부문 석권, 대회신 10건 작성



김장호 구미시장이 제64회 경북도민체육대회 종합우승 해단식에서 우승기를 흔들며 선수단의 성과를 축하하고 있다.

구미시는 지난 15일 구미시체육회 컨벤션에서 제64회 경북도민체육대회 구미시선수단 해단식을 열고 종합우승의 성과를 기념했다.

구미시체육회 주관으로 열린 이날 행사에는 김장호 구미시장, 박교상 구미시의회의장, 윤상훈 구미시체육회장을 비롯한 체육인과 선수단 등 50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대회 성과 영상 상영을 시작으로 우승기·우승컵 전달, 유공자 표창과 장학금 수여, 특별공로패 전달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종합우승 달성에 기여한 선수와 지도자, 종목단체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구미시는 지난 4월 안동시와 예천군 일원에서 열린 제64회 경북도민체육대회에 30개 종목 944명의 선수단을 출전

시켜 종합점수 256.5점을 획득하며 종합우승을 차지했다. 이는 2018년 이후 8년 만의 원정 우승이자 2024년 구미 개최 대회 우승 이후 2년 만의 정상 복귀다.

선수단은 15개 종목에서 우승했고 수영 8건, 롤러 2건 등 모두 10건의 대회신기록을 세웠다. 수영의 천재영, 흥진영, 양지원, 이은영 선수는 각각 4관왕에 올랐으며 천재영 선수는 대회 최우수선수(MVP)를 수상했다. /구미(경북)=김준한 기자 jingon@

경주,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본격 추진

2029년까지 408억 투입해 관망 정비

경주시는 시민들에게 안정적인 수도물 공급을 위해 제2차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한국수자원공사(K-water)에 위탁해 추진되며 동진건설이 시공을 맡는다. 시는 지난달 동천동 우선착수 구간 공사에 들어갔으며, 2029년 12월까지 총사업비 408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사업 대상은 동천동·황성동·용강동 일원으로 노후 상수관망 91km를 교체하고 누수 탐사와 복구를 병행한다. 우선착수 지역인 동천동에는 19억원을 들여 노후관로 정비를 추진하고 있으며, 관련 행정 절차를 마치고 내년 4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경주(경북)=김진곤 기자 jingon@

사업이 완료되면 우수율 향상에 따른 생산비 절감과 함께 녹물 발생 등 노후관로로 인한 민원 감소, 안정적인 급수체계 구축 효과가 기대된다.

다만 일부 공사 구간이 주거지와 상가 밀집지역을 통과해 교통 혼잡과 소음, 비산먼지 등 불편이 예상된다. 이에 시는 상가 밀집지역과 교통량이 많은 구간에 야간 공사를 실시하고 살수차 운영과 신호수배치 등을 통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은 시민들에게 안정적으로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한 사업"이라며 "공사 과정에서 다소 불편이 있더라도 시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부산역에 AI 다국어 안내 키오스크 운영

부산교통공사, 13개 언어 관광객 지원

부산교통공사가 도시철도 부산역에 생성형 AI 기반 다국어 안내 키오스크를 설치하고 운영을 시작했다. 외국인 관광객이 자국어로 말을 걸면 교통·관광 정보를 대화형으로 안내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다. 공사에 따르면 'AI Busan Metro Help Desk'로 이름 붙은 이 키오스크는 역 정보와 운임 체계 등 부산도시철도 관련 데이터를 학습해 이용 방법, 환승 경로, 주변 관광지 정보 등을 제공한다.

한국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를 포함해 총 13개 언어를 지원한다. AI 안내로 해결이 어려운 민원이 발생하면 역무원과의 원격 화상 연결로 전환되며 역무원의 안내 내용은 진해간·통역을 거쳐 이용객에게 전달된다.

도시철도 부산역은 KTX 등 전국 철도망과 도시철도가 교차하는 관문으로,



부산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 도시철도 부산역에서 AI 기반 안내 키오스크를 이용하고 있다. /부산관광공사

외국인 관광객이 시내 이동을 위해 처음 접하는 역이다. 부산연구원에 따르면 부산 방문 외국인 관광객은 2023년 182만 명에서 2025년 364만명으로 늘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유동 인구가 많고 소음이 큰 부산역 환경도 고려했다.

/부산=이도식 기자 metrobusan@

경북, 웰니스관광지 6곳 신규 선정

경주·안동·문경·칠곡·봉화·울진 포함

경북도가 치유와 휴식을 함께 즐길 수 있는 '2026년 경상북도 웰니스관광지' 6곳을 새롭게 선정했다. 신규 선정지는 ▲소노캉경주 웰니스플랜스파(경주) ▲선성현문화단지(안동) ▲사담재스테이(문경) ▲성 베네딕도회 문화영성센터(칠곡) ▲국립백두대간수목원(봉화) ▲울진군 요트학교(울진) 등이다.

이번 선정으로 경북 웰니스관광지는 기존 24곳에서 30곳으로 늘었다. 신규 관광지는 뷰티스파 1곳, 힐링·명상 1곳, 스테이 2곳, 자연치유 2곳으로 구성돼 지역의 다양한 치유자원을 반영했다.

경북도는 선정 관광지에 대해 맞춤형

컨설팅과 관광상품 개발, 홍보·마케팅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여행사 연계 상품 운영과 온라인 할인 프로모션, 국내외 박람회 참가 등을 통해 관광객 유치 기반을 강화한다.

기존 지정 관광지에 대해서도 운영 실태 점검과 품질관리를 병행해 서비스 수준을 높일 방침이다.

경북도는 내년 4월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맞춰 산림·해양·역사문화 자원을 활용한 경북형 웰니스관광 모델을 확대할 계획이다.

박찬우 경북도 문화관광체육국장은 "차별화된 웰니스관광지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고품질 치유관광 목적으로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경북=김준한 기자 kih9@

하동군

유기동물 입양 상반기 54% ↑

하동군 유기동물보호소의 올해 입양 실적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군에 따르면 올해 6월까지 유기동물 51마리가 새 가정에 입양, 지난해 같은 기간(33마리)보다 약 54.5% 증가했다. 지난해 연간 총 입양 건수가 73건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상반기에 이미 연간 실적 약 70%에 도달한 셈이다. 북천 꽃양귀비 축제 기간 주말마다 유기동물 입양 홍보 부스를 운영하며 관광객과 군민을 대상으로 보호 중인 유기동물의 현황과 입양 절차, 지원사업 등을 안내했다.

/하동(경남)=이도식 기자